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115>

JCCT 2019-11-15

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

Perception on Hospice and Attitude to Death for University Students

김묘성

Myosung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를 확인하고 대학생을 위한 호스피스 및 죽음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B 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인터넷 설문지를 SNS를 통해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호스피스 인식 평점 평균은 3.06 ± 0.28 이며, 죽음 태도는 중립적 수용 5.31 ± 1.23 , 죽음공포 3.77 ± 1.39 , 죽음회피 3.56 ± 1.51 , 접근적 수용 3.15 ± 1.30 , 탈출적 수용 3.06 ± 1.43 순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인식은 성별($t = -2.46, p = .015$), 전공($t = 7.97, p < .001$), 호스피스 학습경험($t = 5.58, p < .001$)에서, 죽음 태도 중 '죽음공포'는 호스피스 학습경험($t = -2.51, p = .013$)에서, '죽음회피'는 성별($t = 3.77, p < .001$)에서, '중립적수용'은 전공($t = 2.52, p = .013$), 주관적 건강수준($F = 5.42, p = .005$)에서, '접근적수용'은 종교($t = 4.12,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호스피스 인식은 죽음공포($r = -.25, p = .002$), 죽음회피($r = -.30, p < .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중립적수용($r = .24, p = .003$)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대학생을 위한 긍정적인 죽음 태도를 강화하고 호스피스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대학생, 호스피스, 인식, 죽음,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 between perception on hospice and attitude toward death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hospice or death-related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The survey was performed on 150 students in four universities in B metropolitan cit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30 to August 13,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SPSS/WIN 26.0 program. The mean of perception on hospice score was 3.06 out of 4, of the attitude toward death, 'neutral acceptance', 'fear of death', 'death avoidance', 'approach acceptance', and 'escape acceptance' had average scores of 5.31, 3.77, 3.56, 3.15, and 3.06,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hospice according to gender, major, and experience of hospice-related education and in attitude toward death according to gender, major, religion, subjective health status, experience of hospice-related edu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n hospice and neutral accepta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nd fear of death and death avoidanc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Therefore, we need consider these variables to develop a hospice or death-related education program to enhanc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 death and their perception of hospice.

Key words : universities, students, hospice, perception, attitude to death

*정회원,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19년 9월 3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4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16일

Received: September 03, 2019 / Revised: October 04, 2019

Accepted: October 16, 2019

*Corresponding Author: myosg@deu.ac.kr

Dep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과거에는 어린 아이가 병으로 죽는 일이 흔했고,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등 죽음이라는 일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집 밖에서 죽는 객사를 안 좋은 일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히려 집에서 앓던 사람도 병원으로 실려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늙고 병드는 과정에서 벗어나려 하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 대신 죽음을 회피하고 젊음을 연장하고자 한다. 현대인들은 삶과 죽음을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나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 보다 풍요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성장한다[1,2].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한 과정으로 피할 수 없으니 무섭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1]. 그러나 죽음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긍정적 개념의 죽음 수용도 가능하다[3,4]. 죽음 태도는 정서적 측면의 공포,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인지적 측면,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의 심리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5] 죽음에 대한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준비 자세로서의 마음가짐을 말하며[6] 죽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7].

선행연구에서 죽음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성별[8], 연령[9], 종교[9-11], 학력[8,12], 주관적 건강상태[9,13], 죽음에 대한 교육[14]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대상이 간호사[3,6,8,12,13]나 간호학생[7,14,15]이 많았고, 대학생[5]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지 죽음의 의미를 죽음공포, 불안, 그리고 회피를 측정하는 문항이 대부분이어서 죽음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대학생들이 속한 청년 집단은 자신의 인생에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고, 건강을 위협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으나[15,16] 대학생들 역시 암을 포함

한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가족들의 죽음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부터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5].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뜻한다[17]. 특히 임종 환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스피스 교육은 간호 대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18].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학생들에 비해 전공 수업이나 임상 실습을 통해 죽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7], 전공에 따라 대학생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19] 간호학과 학생뿐 아니라 타 전공 대학생들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대상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태도를 조사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과 죽음 준비 교육 및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태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를 파악한다.
- 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 죽음 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에 따른 죽음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크기는 G power 3.1.9.4 program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효과 크기 0.5로 산출한 결과 13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12부를 제외한 150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수행되었다. 본 조사는 구글을 통해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SNS를 통해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참여 전에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자발적 연구 참여 동의를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성별, 연령, 전공, 종교, 주관적 건강수준, 호스피스 학습경험, 죽음경험)과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태도로 구성하였다. 전공은 의료계열과 비의료계열로 구분하였으며, 의료계열은 간호학과가, 비의료계열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상경, 예체능계열이 포함되었다.

1) 호스피스 인식

호스피스 인식은 Kim [20]과 Lee [21]가 개발한 도구를 Kim [2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호스피스 정의와 철학’ 4문항, ‘호스피스 대상자’ 2문항,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8문항, ‘통증과 증상 조절의 필요성’ 2문항, ‘호스피스 윤리 및 심리’ 4문항,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2문항의 총 22문항 4점 척도이다.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2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 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81 이었다.

2) 죽음 태도

죽음태도는 Wong, Reker와 Gesse [23]가 개발한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를 Kim [3]이 번역·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죽음공포, 죽음회피, 중립적수용, 접근적수용, 탈출적수용의 5개 하위척도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음공포는 7문항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말하며, 죽음회피는 5문항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피하는 하나의 대처 기전을 말한다. 중립적수용, 접근적수용과 탈출적수용은 최종 사망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된 상태인 죽음 수용을 의미한다. 중립적수용은 2문항으로 죽음을 삶의 통합된 한 부분으로 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적수용은 10문항으로 행복한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과 관련이 있으며, 죽음을 행복한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로 여긴다. 탈출적수용은 5문항으로 죽음을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탈출의 기회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23]([3]에서 재인용함). 본 도구는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전적으로 그렇다’ 7점으로 평가하였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65(중립적수용)~.97(접근적수용)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47(중립적수용)~.92(접근적수용)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
Table 1. Perception on Hospice and Attitude to Dea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Perception on hospice		Attitude to death							
		Fear of death		Death avoidance		Neutral acceptance		Approach acceptance		Escape acceptance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Total	150(100.0)	3.06±0.28		3.77±1.39	3.56±1.51	5.31±1.23	3.15±1.30	3.06±1.43			
Gender	Male	2.98±0.33	-2.46 (0.15)	3.92±1.55	4.22±1.60	5.28±1.14	3.11±1.46	3.10±1.59	-0.25 (802)		0.24 (810)
	Female	3.10±0.25		3.70±1.31	3.26±1.37	5.33±1.27	3.16±1.23	3.04±1.37			
Age	≤20	3.04±0.30		3.83±1.36	3.61±1.55	5.50±1.05	3.21±1.33	3.22±1.47			
	≥21	3.08±0.27	-0.74 (463)	3.71±1.42	3.50±1.47	5.10±1.37	3.08±1.28	2.88±1.39	0.64 (523)		1.44 (151)
Major	Medical	3.20±0.22		3.69±1.34	3.48±1.43	5.53±1.10	3.25±1.20	3.13±1.46			0.68 (501)
	Nonmedical	2.89±0.25	7.97 (<.001)	3.87±1.45	3.66±1.61	5.03±1.34	3.01±1.42	2.97±1.41			
Religion	Yes	3.02±0.33		3.85±1.36	3.89±1.39	5.05±1.13	3.97±1.56	3.34±1.57			1.46 (146)
	No	3.07±0.26	-0.95 (346)	3.74±1.40	3.44±1.53	5.40±1.25	2.86±1.06	2.96±1.38	4.12 (<.001)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a	3.06±0.31		3.87±1.43	3.54±1.59	5.11±1.33	3.15±1.31	3.00±1.44			
	Moderate ^b	3.06±0.26	0.03 (974)	3.67±1.36	3.55±1.47	5.55±1.06	3.14±1.32	3.12±1.47	5.42 (0.005)*	0.02 (979)	0.18 (833)
	Poor ^c	3.09±0.34		4.11±1.06	4.10±0.89	3.88±1.11	3.28±1.10	2.80±0.49			
Experience of hospice education	Yes	3.20±0.24		3.44±1.38	3.34±1.39	5.54±1.14	2.95±1.19	2.81±1.29			-1.78 (078)
	No	2.96±0.27	5.58 (<.001)	4.00±1.35	3.72±1.57	5.15±1.27	3.28±1.36	3.23±1.51	1.95 (054)	-1.54 (125)	
Experience of death	Yes	3.09±0.27		3.70±1.39	3.44±1.44	5.40±1.18	3.14±1.36	2.89±1.48			-0.72 (476)
	No	3.01±0.29	1.80 (074)	3.87±1.39	3.79±1.59	5.17±1.29	3.16±1.23	3.16±1.37	1.14 (256)	-0.08 (940)	

* Duncan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03명(68.7%), 연령은 평균 21.17±3.29세로 만 20세 이하가 78명(52.0%), 전공은 의료계열이 84명(56.0%), 종교가 없는 학생이 111명(74.0%)으로 많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보통이 79명(52.7%)로 많았으며, 건강한 경우가 67명(44.7%), 건강하지 않음이 4명(2.7%)이었다. 호스피스 학습경험이 없는 경우가 88명(58.7%), 죽음 경험이 있는 경우가 89명(59.3%)로 많았다<표 1>.

2. 대상자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

대상자의 호스피스 인식 평점 평균은 3.06±0.28이며, 죽음 태도는 중립적 수용 5.31±1.23, 죽음공포 3.77±1.39, 죽음회피 3.56±1.51, 접근적 수용 3.15±1.30, 탈출적 수용 3.06±1.43 순으로 나타났다<표 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의 결과는 <표1>과 같다. 호스피스 인식은 성별($t=-2.46, p=.015$), 전공($t=7.97, p<.001$), 호스피스 학습 경험($t=5.5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 의료계열, 호스피스 학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호스피스 인식 점수가 높았다.

죽음 태도 중 ‘죽음공포’는 호스피스 학습경험($t=-2.51, p=.013$)에서, ‘죽음회피’는 성별($t=3.77, p<.001$)에서, ‘중립적수용’은 전공($t=2.52, p=.013$), 주관적 건강수준($F=5.42, p=.005$)에서, ‘접근적수용’은 종교($t=4.1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탈출적수용’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호스피스 학습경험이 없는 경우에 죽음공포 점수가 높았으며, 남성인 경우에 죽음회피 점수가 높았으며, 의료계열과 주관적 건강수준이 건강하거나 보통인 경우에 중립적수용 점수가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접근적수용 점수가 높았다.

4. 대상자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 간 관계

대상자의 호스피스 인식은 죽음공포($r=-.25, p=.002$), 죽음회피($r=-.30,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중립적수용($r=.24, p=.003$)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2>.

표 2. 대상자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 간 관계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 on hospice and attitude to death

Variables		Perception on hospice r(p)
Attitude to death	Fear of death	-.25(.002)
	Death avoidance	-.30(<.001)
	Neutral acceptance	.24(.003)
	Approach acceptance	-.04(.645)
	Escape acceptance	-.05(.543)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에 따른 죽음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으며, 주요 변인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 수준은 중간정도 수준으로 여자, 의료계열, 호스피스 학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호스피스 인식 점수가 높았다. 이는 일반 성인 [24,2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22], 간호대학생[7] 보다 낮은 점수로 호스피스 교육의 기회가 많거나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많은 경우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 연구[24]에서도 여성의 경우 호스피스 인식 점수가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료계열은 간호학과 학생으로 수업이나 실습 중에 호스피스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은 여학생이 많아 성별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죽음 태도는 중립적수용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립적수용은 호스피스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계열과 주관적 건강수준이 건강하거나 보통인 경우에 높았다. 이는 대학생들이 죽음을 삶의 통합된 한 부분으로 보는 경향[3]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과의 특성상 수업이나 실습 중에 호스피스를 경험할 기회가 많은 의료계열 학생들에 비해 비의료계열 학생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스스로 건강수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중립적수용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으므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긍정적인 죽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호스피스 교육이나 죽음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26].

본 연구에서 죽음공포와 죽음회피는 중립적 수용 다음으로 높은 점수로 조사되어 대학생의 죽음 태도가 부

정적인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죽음공포는 호스피스 학습경험이 없거나 호스피스 인식 점수가 낮을수록 높았고, 죽음회피는 호스피스 인식 점수가 낮거나 남성에서 많이 나타났다. 죽음공포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죽음회피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3]하므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다[26]. 또한 대상자가 모두 여성이었던 김향의 연구[3]에서는 성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남성이 낮아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비를 비슷하게 하여 추후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접근적수용은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3]와 일치하는 결과로 행복한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과 관련 있으며[3], 종교가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9,11].

탈출적 수용은 대학생들의 죽음 태도 중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호스피스 인식이나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연령과 죽음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의대생 대상의 선행연구[27]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임상경험이 많고, 실제로 교육받을 기회가 많은 노인 요양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에서는 탈출적수용의 평점 평균이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죽음의 경험이나 교육 경험 등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태도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26] 대학생 시기에 죽음과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죽음경험은 호스피스 인식이나 죽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 연구[3,27]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V. 결 론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 수준은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죽음 태도는 중립적 수용 이외에

죽음공포와 죽음회피의 부정적 경향이 높았고, 죽음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호스피스 인식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 태도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확립과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죽음의 태도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호스피스와 죽음 관련 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Well-dying Convergence Research Society in Konyang university,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well dying. Paju: Soomoonsa; 2018.
- [2] Kwon SH, A justification on the evil of death.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4), pp.27-33, 2017. <https://doi.org/10.17703/JCCT.2017.3.4.2>
- [3] Kim H, Attitudes toward death and end-of-life care among nurses in nursing home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 [4] Nam HS, The differential effects of death fear on the meaning perceptions in life by death acceptance levels. [master's thesis]. [Seoul]: Catholic University; 2012.
- [5] Lee YE, Choi EA, Lee KE, Spiritual welling-being, attitude to death and perception of hospice care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8(4), pp.294-305, 2015. <http://dx.doi.org/10.14475/kjhpc.2015.18.4.294>
- [6] Cho OH, Han JS, Hwang KH, Subjective health status, attitude toward death and spiritual well-being of nurses.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13(10), pp.375-384, 2013.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0.375>
- [7] Kim SO, Attitude to death and hospice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4), pp.691-700. 2018.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4.11>
- [8] Kang JH, A study on intensive care unit nurses' recognition of death. [master's thesis].

- [Seoul]: Sahmyook University; 2011.
- [9] Dezutter J, Soenens B, Luyckx K, Bruyneel S, Vansteenkiste M, Duriez, B. et al. The role of religion in death attitudes: distinguishing between religious belief and style of processing religious contents. *Death Studies*, 33(1), pp.73-92, 2009.
- [10] Park Y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 to death in hospice nurses. [master's thesis]. [Busan]: Busan catholic University; 2011.
- [11] Kim MS. Perception and attitude of Koreans towards death and it's philosophical implications.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22, pp.73-108, 2010.
- [12] Yoon YJ.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 Death and Burnout of Hospice staff.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09.
- [13] Eo DY. Nurses' death anxiety and attitude concerning hospice care. [master's thesis]. [Busan]: Busan catholic University; 2010.
- [14] Cho HJ, Effect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of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4.
- [15] Min HJ, A study on osteoporosis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aejeon: Eulji University; 2011.
- [16] Byeon DH, Park MH,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about the meaning of Life, death and well-dying and hosp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pp.169-176,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5.169>
- [17] Korean Hospice & Palliative Nurse Association, Study guide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aju: Soomoonsa; 2006.
- [18] Lee YE, Choi EJ, Park JS, Effects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on knowledge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pp.280-288, 2012.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80>
- [19] Jung HO, Chung KT, Hwang WD, Kim YS, An JH, Kim DH, et al.,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orientation and attitudes on hospice-To develop homo humanitas thanatology -.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1(22), pp.153-168, 2010. <http://dx.doi.org/10.17949/jneac.1.22.201003.009>
- [20] Kim JH, The attitude of medical personnel about death and hospice research.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1990.
- [21] Lee EJ, A study of spot-survey towards the attitude of hospice. [master's thesis]. Iksan: Wonkwang University; 1998.
- [22] Kim MS, Comparison on the perception about hospice and the meaning of life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he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master's thesis]. K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 [23] Wong PTP, Reker GT, Gesser G,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 A multidimensional measure or attitudes toward death. In R.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1994.
- [24] Choi KA, Perception of hospice and attitude to death of the adults in a local area. [master's thesis]. [Busan]: Kosin University; 2011.
- [25] Choi GH, Kwon SH, The effects of a hospice palliative education program on perception of hospice,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of life in adults. *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1(1), pp.14-22, 2018. <https://doi.org/10.14475/kjhpc.2018.21.1.14>
- [26] Kim EH, Lee EJ,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Nursing*, 39(1), pp.1-9, 2009. <https://doi.org/10.4040/jkan.2009.39.1.1>
- [27] Asadpour M, Sabzevari L, Ekramifar A, Bidaki R, The attitude of medical students toward death: A cross-sectional study in Rafsanjan. *Indian Journal Palliative Care*, 22(3), pp.354-361, 2016. <https://doi.org/10.4103/0973-1075.185084>.